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4.80원 하락한 1,108.20원에 마감

29일 환율은 전일대비 4.80원 하락한 1,108.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00원 내린 1,109.00원에 개장했다. 이날 환율은 미국 통화정책회의 이후 달러화 약세가 재개되면서 1,105원대까지 하락하였다. 장 막판에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로 마감하면서 하락폭을 다소 회복하여 환율은 전일대비 4.80원 하락한 1,108.2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18.71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09.00	1109.00	1105.70	1108.20	1107.4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21.85	1022.02	1014.09	1016.88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49.40	1350.67	1340.92	1342.99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	-0.33	-0.71	-1.49
	결제환율(수입)	0	0.61	0.72	0.91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 <a href="https://www.ksure.or.kr/rh-fx/index.do">https://www.ksure.or.kr/rh-fx/index.do</a> )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美 경기회복 낙관론에 위험선호심리 회복... 1,10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08.20원) 대비 0.45원 내린 1,107.8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경기회복 낙관론과 미국 기업실적 호조에 기인한 위험선호심리 회복에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대비 6.4%를 기록하며 예상(6.5%)을 소폭 하회하였으나 견고한 회복세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욕 주식시장은 애플이 1~3월 매출이 54% 증가하는 등 기업실적 호조에 상승하였다.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회복이 외국인 국내증시 매수로 이어질 경우 환율 하락이 예상된다. 월말 수출업체 네고 유입과 역외 원화 강세 배팅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와 1,100원을 하단으로 인식하는 저가매수 유입은 환율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표 호조로 인한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환율 하단을 지지할 것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04.00 ~ 1110.00 원
체크포인트	<div>■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91.61 억원</div> <div>■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45원 ↓</div> <div>■ 美 다우지수 : 34060.36, +239.98p(+0.71%)</div> <div>■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1.97 억달러</div> <div>■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99 억원</div>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